

“작은 나눔 실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주지역 20개 업소, 오순도순 나눔터 지정

나눔과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전주지역 20개 업소가 '오순도순 나눔터'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5일 '오순도순 나눔터'로 선정된 20개 업소 대표를 초청해 기념패를 전달하고, 그간 실천해온 이웃사랑과 나눔실천, 재능기부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오순도순 나눔터는 지역사회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년 이상(10회 이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로, 시는 올해로 3년째 오순도순 나눔터를 지정해 격려하고 있다.

이들 선정 업소들은 그간 △홀로겨우겨 어르신 점심 대접 △소외계층의 명절선물 △장애인 시설 제빵 나눔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지역복지단체 푸드뱅크 지원 △이마음 무료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의 모범이 됐다.

이날 참석한 한 오순도순 나눔터 업체 대표는 “나눔은 당연한 일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행복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라며 “나눔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닌 나누어서 커지는 것으로 더 많은



나눔과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전주지역 20개 업소가 '오순도순 나눔터'로 지정됐다.

사람들이 나눔 실천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의옥 전주지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작은 나눔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

이 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순도순 나눔터' 칭찬 릴레이가 계속돼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대 ROTC 총동문회, 모교에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전주대 ROTC 총동문회(회장 조성백)가 모교에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ROTC 총동문회는 지난 1일 오후 5시 N타워에서 개최된 '전주대 학군단 백마루 제 행사'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최용재 학군단 수석부회장은 “ROTC 후보생들이 문무겸전의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철 부총장은 “전주대 ROTC 총동문회에서 호국간성이 될 ROTC 후보생들 중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며 “모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해주시는 데 이어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까지 기부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주대 ROTC 총동문회는 2013년에 재건 이후, 학군단의 각종 훈련과 행사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해은 기자

호원대학교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호원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강희성 총장)이 5일 서수면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단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정 4가구를 방문해 한국GM의 후원을 통해 각 연탄 300장과 쌀 50kg씩을 기탁했으며, 기탁된 연탄과 쌀은 호원대 총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과 서수면 이장단이 합심하여 가정에 전달했다.

강희성 총장은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는 어려운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수면 이삼구 면장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호원대학교 사회봉사단 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산학관 커피링 지역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수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주민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시시 010-9845-4113 | 중앙지사 010-9388-6874 | 남원지사 632-3386 | 고창지사 563-6989 |
| 삼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855 | 김제지사 547-8855 | 임실지사 010-9642-2725 |
| 서산지사 010-6789-0138 | 순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8855 | 진안지사 433-3084 |
| 호주지사 010-6645-9355 | 광복지사 253-6944 | 남원지사 632-0955 | 정읍지사 538-3787 |
| | 군산지사 010-6789-0138 | 순창지사 653-0444 | 장수지사 010-3682-9157 |
| | 익산지사 659-9323 | 부안지사 010-2455-4182 |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규석 수출전문위원, 전주 모 업체 수출 상담

전북 KOTRA지원단 고규석 수출전문위원이 연초 전주에 소재한 농산물 수출업체 K사를 방문해 고충을 듣고 KOTRA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출 상담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원재료 유통리인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농가와 사전 계약으로 주문 생산을 하는 덕에 제품이 균등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불안으로부터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마케팅 부족으로 수출이 저조하여 의욕 상실할 시기에 고 수출전문위원은 방문은 전군만미를 얻은 것.

고 수출전문위원은 H대표의 고민을 듣고 K사 해외마케팅 활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해외 바이어를 다수 발굴했지만 실제 거래한 바이어는 기대에 못미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수출사업은 해외에만 나가면 무엇이든 이루어 지겠지 하는 기대만 갖고 시장 선택 없이 막연히 추진하지 말고 KOTRA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에 목표시장을 반드시 추천 받아 동 시장만 집중 공략하도록 상담해 주었다.

고 수출전문위원은 과거 KOTRA 국내의에서 30년이상 근무한 경험을 살려 처방해 주었다.

또한 해외현지에서 상담한 바이어는 모두 일괄 관리를 지양하고 A, B, C급으로 분류하여 A에 해당하는 바이어만 집중해서 상담을 Follow-Up 하도록 했고 나머지 B,C급은 중장기 시간을 갖고 친구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에 노력하도록 조언했다.

고 수출전문위원은 “H대표로부터 동문서주만 했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해외시장 개척에 자신을 기댈면서 내년도 수출전략에 대해서도 재차 상담 지원을 요청 받은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김용규 원광대 교수,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김용규 교수가 지난 4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2018년 장년을 앞둔 김용규 교수는 “지금까지 몸담아온 대학을 떠나기에 앞서 조금이나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비록한 정성이지만, 요즘 대학이 주력하고 있는 육종연구를 위해 기금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중 총장은 “지금까지 후학양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종자시장 개척 등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규 교수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과 전남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부터 원광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선정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모양지구대가 2017년 경찰청에서 주관한 베스트 지구대·파출소에 선정되었다.

5일 모양지구대에 따르면 모양지구대는 전국17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중요범죄에 대한 현장검거와 112신고와 관련, 각종 구조 및 가정·학교폭력 관련 등 현장조치 등 5개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2·3급지 전국 10개 관서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특히 모양지구대는 지난 1년간 사할 불상절도범 검거 등 절도·성범죄 관련한 63건의 현장검거 성과를 거뒀으며, 기도막힌 유아를 구조하여 17년 2분기 현장예(愛) 영웅에 선정, 모양11팀 베스트순찰팀 4분기 연속 선정 되는 등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윤금산 지구대장은 “모든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고창경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자유동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배

전주농협 산자유동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우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